

# 제34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

- 간단한 공모전 내용: 주최\_가인디자인그룹 주관 가인디자인그룹이 주최하고 월간인테리어가 주관하는 제34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인대전  
198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이후 34년째 창의력 있고 독창적인 예비 인테리어디자이너를 발굴하는 데 기여해 온 본 대전은 보고서 양식의 공모전 형식을 수년째 유지함으로써 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사고를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수상하신 작품 이미지 + 내용 : 서촌의 틈으로 소통하다 (new0normal 시대 co-living house) / 입선 수상
- 이름, 학번 : 유한슬, C1191201

- 수상작품 이미지 + 내용

Communicate through the cracks of Seochon

코로나 19 이후 이동 제한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거의 절반 가까이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택근무 경험을 계기로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국내외 재택근무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업무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주거공간도 변화해야 한다.

집에서도 주거환경과 구분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프로젝트의 컨셉은 “서촌의 틈으로 소통하다” 이다.

틈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 상징과 보이지 않는 시간적 상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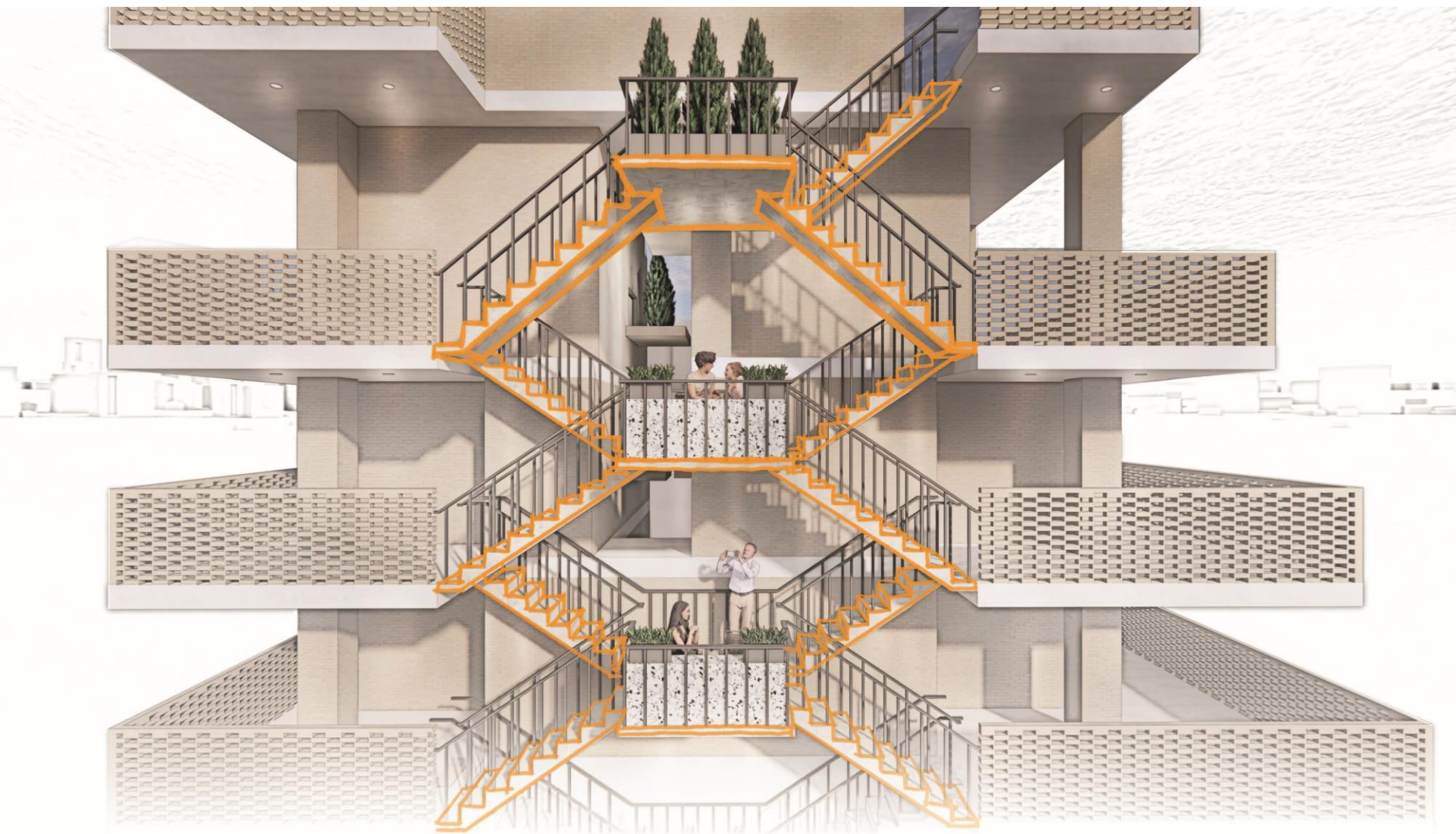
서촌 건물들의 특징은 건물 사이가 붙어있어 그 사이에 틈이 존재하는데 그 틈으로 그림자가 지고, 빛이 들어온다.

또다른 틈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언제든지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사유하며 일상의 틈과 소통의 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유와

쉼, 자연, 빛을 건물에

녹여보았다.



서촌의 틈으로 소통하다

NEW-NORMAL 시대 CO-LIVING HOUSE

# PROLOGUE

## CITY SHELTER

코로나 19와 바쁜 현생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터는 얼마나 있을까?  
도심 속 쉼터를 찾아서...

### CONTENTS

PROLOGUE  
BACKGROUND  
SITE ANALYSIS  
RENOVATION PROCESS  
DESIGN CONCEPT  
ISO METRIC  
FLOOR PLAN  
SECTION  
INTERIOR VIEW  
EPILOGUE





##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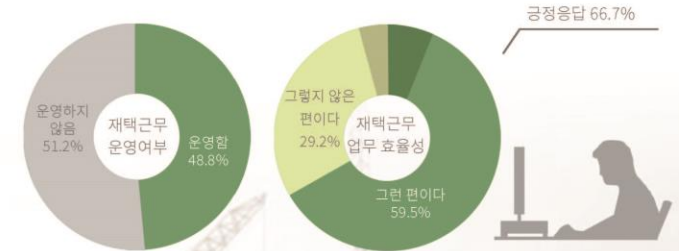
1)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도시재생이 열풍이다. 서촌은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사대부, 중인들의 거주지로,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문인과 예술인이 많이 자리잡은 곳이다. 또한, 2010년 한옥밀집지구로 지정될만큼 한옥이 많이 있는 곳이다. 서촌은 큰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작은 골목길로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골목길 중 한 곳을 사이트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의 일부인 리노베이션을 기획해보았다.

2)

### 재택근무 활용 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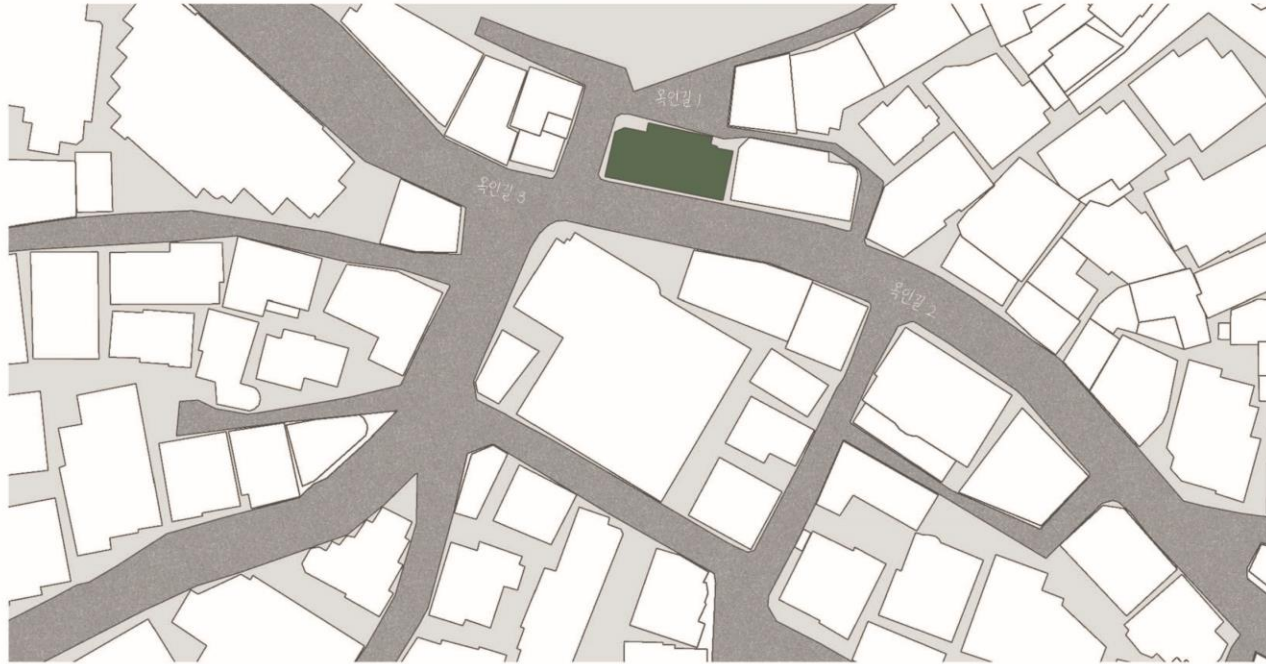
코로나 19 이후 이동 제한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거의 절반 가까이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택근무 경험을 계기로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국내의 재택근무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업무환경이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서 주거공간도 변화해야 한다. 집에서 주거환경과 구분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SITE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길 32-5

# SITE ANALYSIS

SIT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길 32-5



연면적 214.95 m<sup>2</sup>

서촌의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와 목 구조, 벽돌 구조 순으로 많았고, 건물의 용도는 대부분 공동 주택이고 높이는 대체적으로 낮은편이다. 사이트로 선정된 곳은 서촌의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보이는 곳으로 주거공간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곳이다. 이곳의 특징은 첫째, 트인 시야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밀집되어 있는 서촌의 주거단지 속에 조망권이 확보되어있는 곳이고, 건물의 북쪽과 서쪽에 녹지공간이 형성되어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다 생각하였다. 또한, 비교적 넓은 골목길과 등산로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에도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단의 디자인이 특이했다.

# SITE ANALYSIS



건물 용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목 구조  
벽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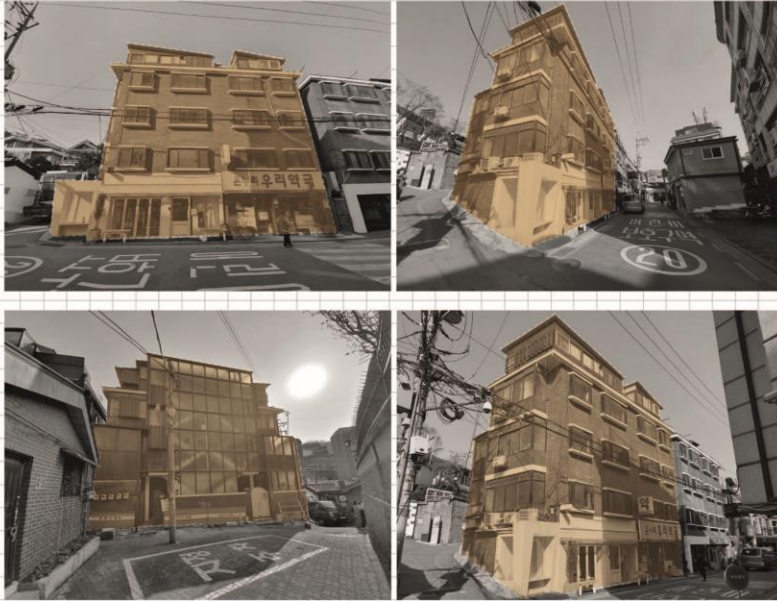
건물 높이

낮은 건물  
높은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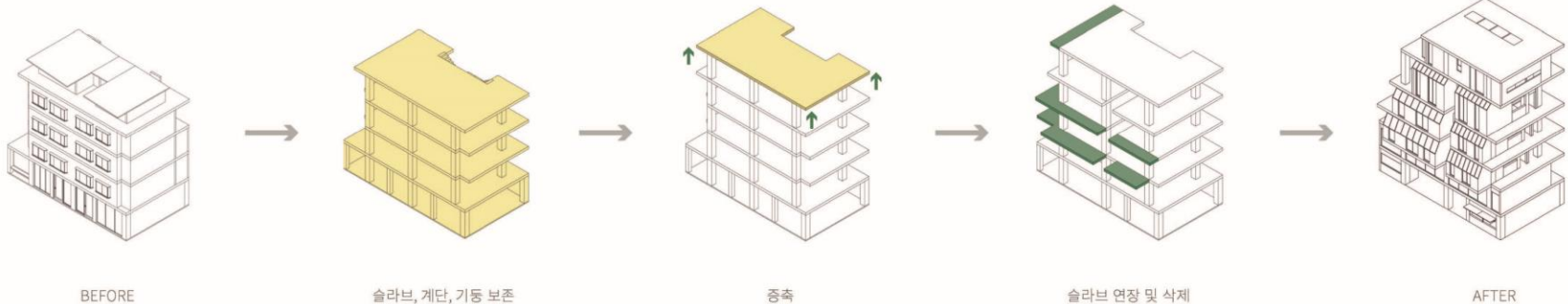
# RENOVATION PROCESS

## # SITE 현황



/ 구조 : 벽돌 구조  
 / 연면적 : 214.95 m<sup>2</sup>  
 / 대지면적 : 96.36 m<sup>2</sup>  
 / 사용 승인 일자 : 1991. 11. 30  
 /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 연립주택 8세대  
 / 기존 건물의 계단은 X자 모양의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서 멀리서부터 눈에 띄었다.  
 초반에는 외부에 돌출된 형태로 했다가 추후에 소틸로 계단실을 만든 듯한 느낌이었다.  
 뒤에서 볼 때 슬라브의 하안책 부분이 강조되어 보여서 슬라브와 기둥, 계단은 보존한 후에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였다.

## # RENOVATION PROCESS



## DESIGN CONCEPT

### 1) 빛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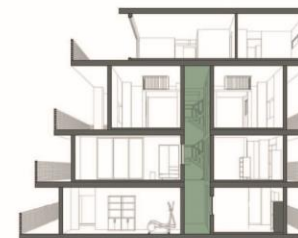
기존 건물은 북쪽과 서쪽이 트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어두웠다.  
그래서 테라스와 천창을 활용하여 기존 건물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 2) 환기와 통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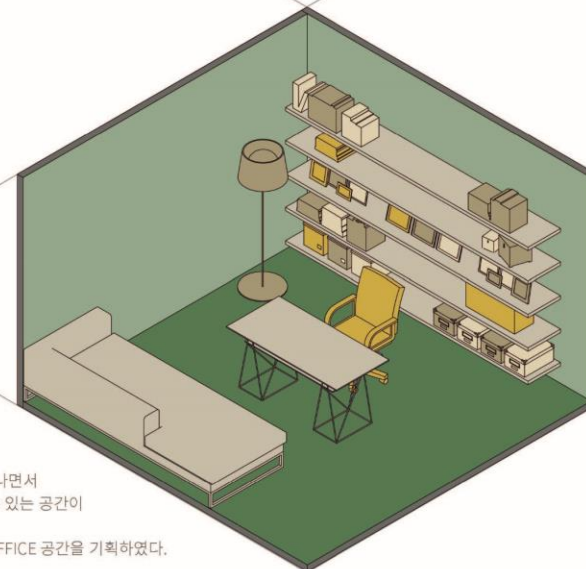
기존 건물은 세대가 붙어있어서 환기에 불리했는데  
테라스와 VOID공간을 두어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 3) VOID



세대 간에 VOID공간의 공간이 협소하여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창문 앞에 식물을 배치하여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였다.

### 4) HOM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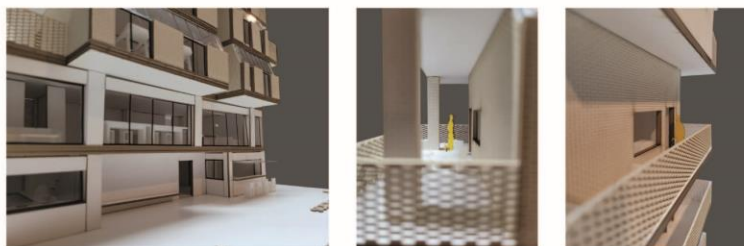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HOME OFFICE 공간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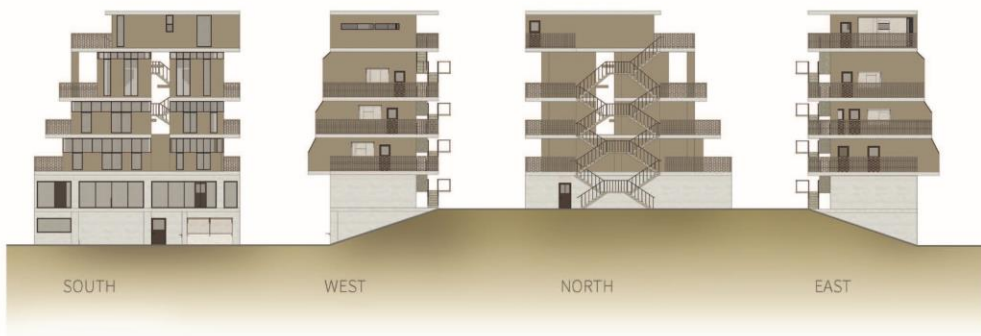
# MODEL, ELEVATION, CIRCULATION (ISOMETRIC)

#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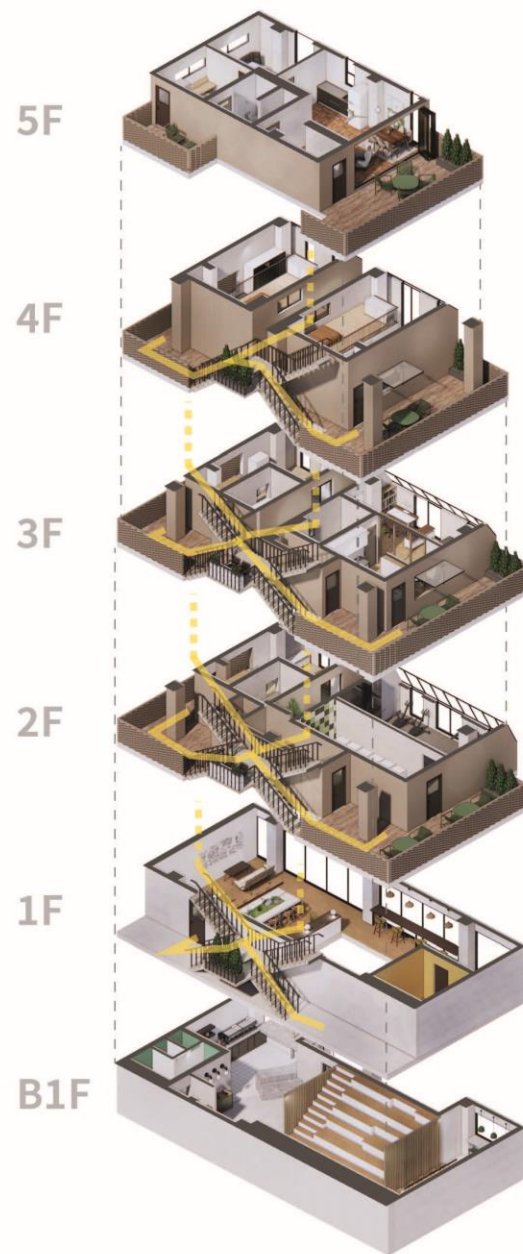
DETAIL

#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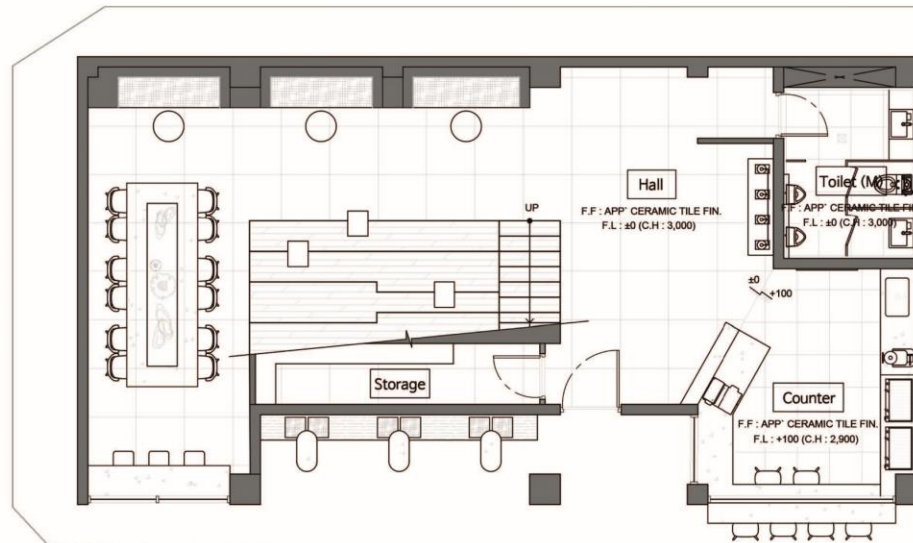


# CIRCULATION

TRAFFIC LINE



##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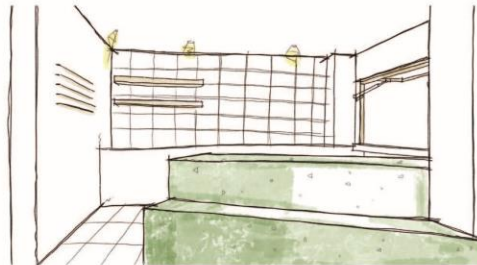
B1 FLOOR PLAN



### # INTERIOR SKETCH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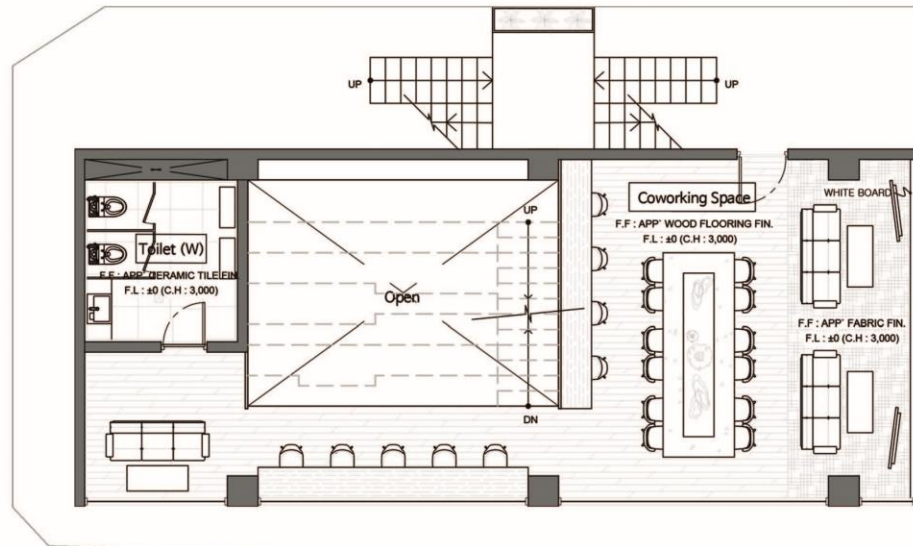


COUNTER

CAFÉ : 131.19㎡ (40py)

공간의 중앙에 큰 계단을 두어 1층의 CO-WORKING SPACE와의 연관성을 주었다. 카운터 쪽에 들창문을 주어서 직원과 지나가는 행인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현관 쪽 야외 테라스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역 주민, 거주자,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이다.

## FLOOR PLAN



1st FLOOR PLAN



# INTERIOR SKETCH



CO-WORK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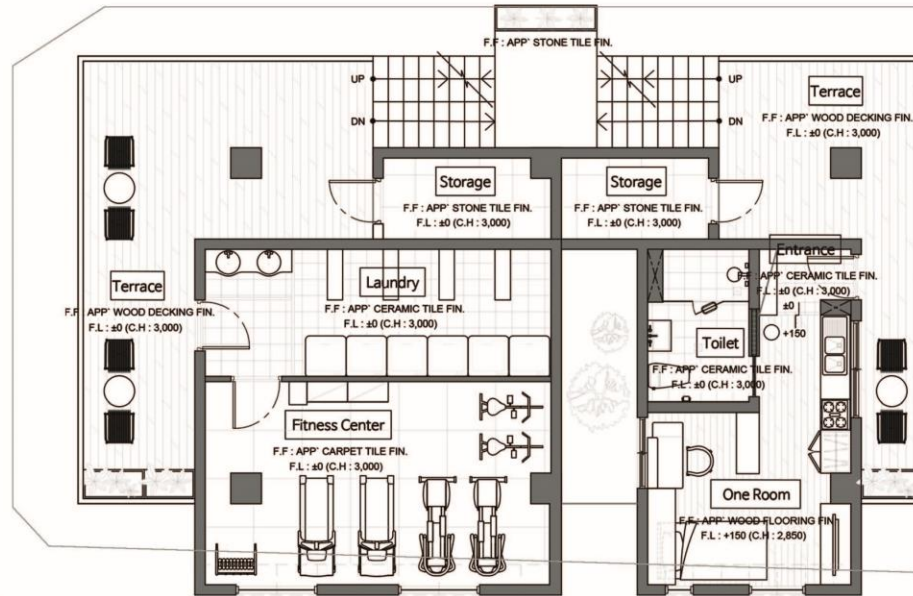
CO-WORKING SPACE

CO-WORKING SPACE : 106.38㎡ (32py)

큰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나오는 공간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co-working space이다. 큰 창을 내어 개방감을 주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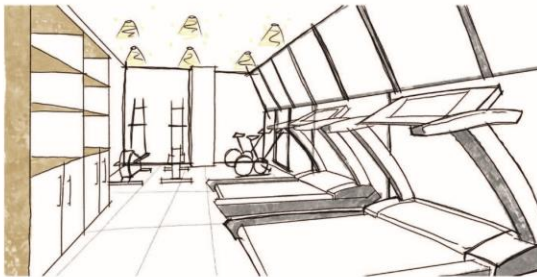
## FLOOR PLAN



2nd FLOOR PLAN



# INTERIOR SKETCH



FITNES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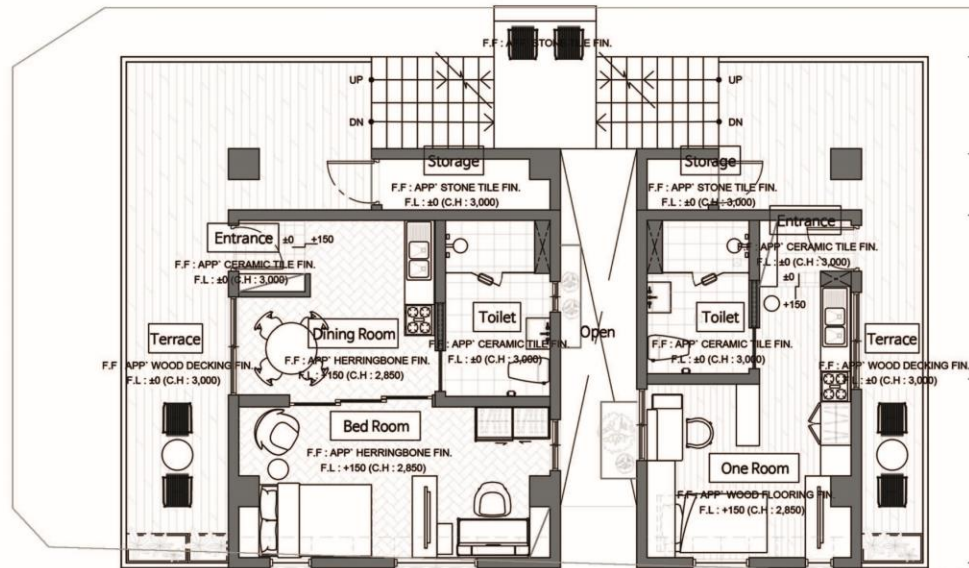


LAUNDRY

FITNESS CENTER & LAUNDRY ROOM : 44.05㎡ (13py)  
일반 원룸 : 26.08㎡ (8py)

사이트 주변에 fitness center가 없어서 거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fitness center를 계획하였다. 또한, 세탁을 기다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laundry room을 기획하였다.

## FLOOR PLAN



3rd FLOOR PLAN



# INTERIOR SKETCH



1.5룸 - HOM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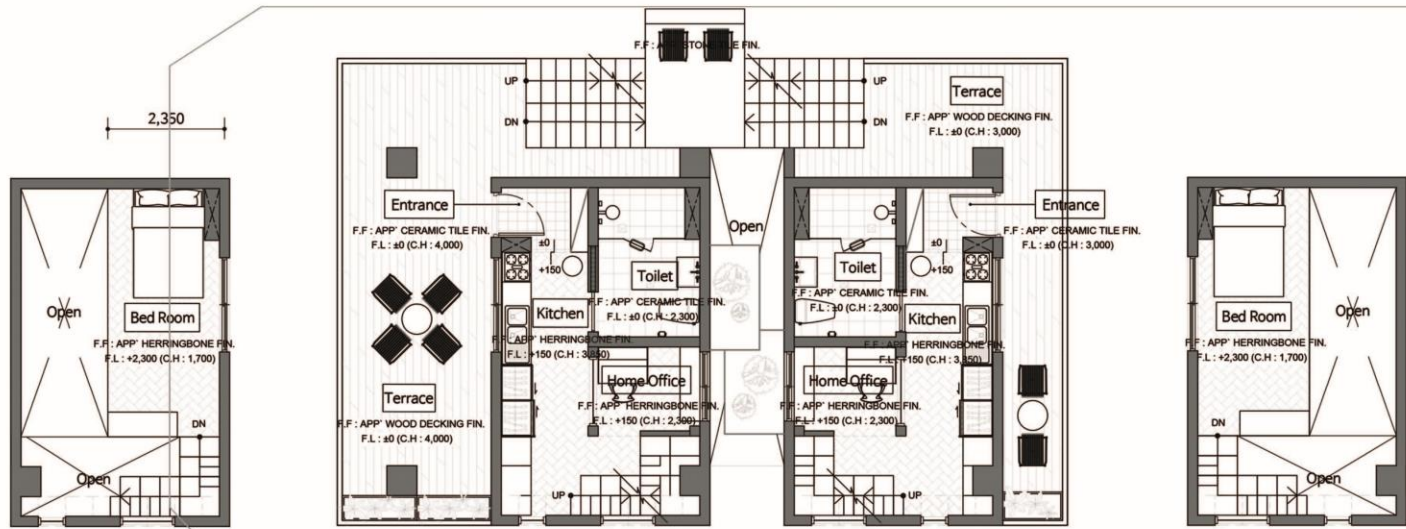


1.5룸 - DINING ROOM

1.5룸 : 39.78㎡ (12py)  
일반 원룸 : 26.08㎡ (8py)

1.5룸의 다이닝룸과 침실 사이에 문으로 구분을 해주었고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미닫이문으로 계획하였다. 테라스 쪽 창문은 들창문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쉽게 하였다.

# FLOOR PLAN



4th FLOOR PLAN



## # INTERIOR SKETCH



확장형 원룸 - HOM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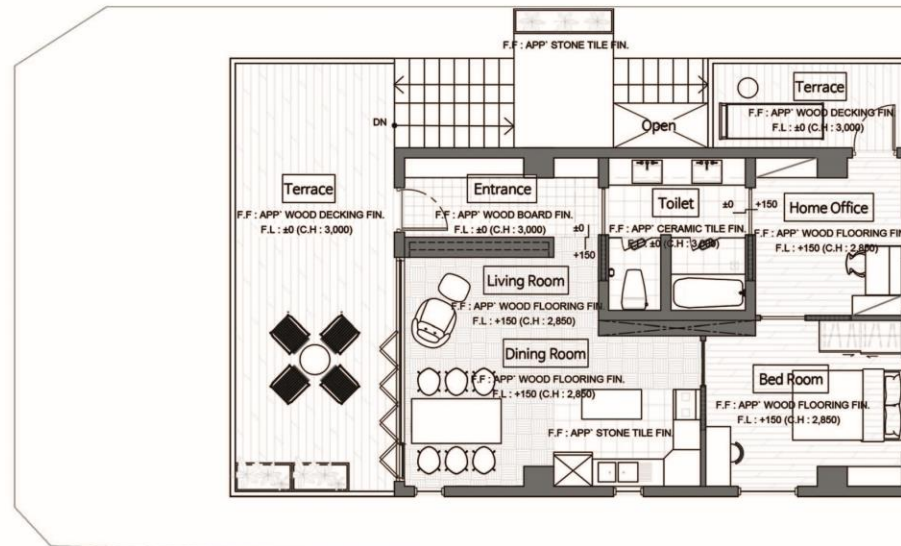
확장형 원룸

확장형 원룸 : 32.52㎡ (10py)

일반 원룸과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복층으로 구성하였다.  
복층에는 침실을, 아래층에는 홈 오피스를 두어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구분해주었다.



## FLOOR PLAN



5th FLOOR PLAN



# INTERIOR SKETCH



PENTHOUSE - ENTRANCE



PENTHOUSE - DINING ROOM

PENTHOUSE : 65.28㎡ (20py)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는 순환구조로 구성하였다.  
테라스 쪽 창은 폴딩도어로 하여 문을 열었을 때 좁은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 SECTION

KEY PLAN



+ 20,000

+ 16,000

+ 12,000

+ 9,000

+ 6,000

+ 3,000

± 0,000



A - A' SECTION

# SECTION

KEY PLAN



+ 20,000

+ 16,000

+ 12,000

+ 9,000

+ 6,000

+ 3,000

± 0,000



B - B`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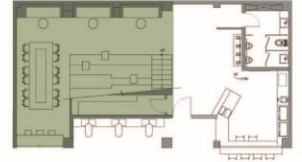
## INTERIOR VIEW

### B1F - CAFÉ

SPACE STORY: 1층에 코워킹 스페이스와 연관이 되도록 매장 가운데에 계단을 설치하여 오브제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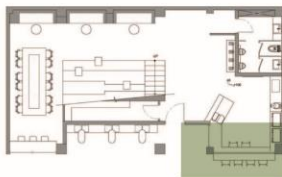
마주보는 좌석 대신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구성하였고, 계단 양쪽으로 루버를 설치하여 틈을 연상하게 하였다.

KEY PLAN



## INTERIOR VIEW

KEY PLAN



### B1F - CAFÉ

SPACE STORY : 지나가는 행인이 가볍게 앉아서 직원과 소통할 수 있고, 다른 행인을 구경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카운터에 들창문을 내주었다. 또한, 안쪽에 창을 내어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도 바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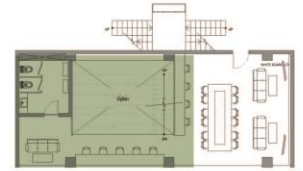


## INTERIOR VIEW

### 1F - CO-WORKING SPACE

SPACE STORY : 개방감있는 창 밖으로 풍경을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좌석과 계단 밑 풍경을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좌석, 화이트 보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좌석 등 업무를 보는 형태와 스타일에 맞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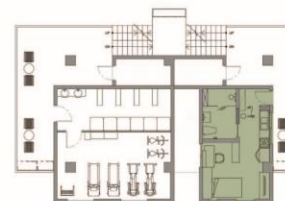


## INTERIOR VIEW

### 2F - 일반 원룸

SPACE STORY : 주방과 홈 오피스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1200정도의 책장을 두었고,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 매쉬로 마감된 제품을 두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침대 위쪽과 옆쪽에 수납장을 두었다.

KEY PLAN



## INTERIOR VIEW

### 3F - 1.5룸

SPACE STORY: 주방과 침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닫이 문을 달았고, 홈오피스와 침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낮은 장을 두었다.  
미닫이 문으로 구분을 해주었기 때문에 문을 열면 개방감이 있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KEY PLAN





## INTERIOR VIEW

KEY PLAN



### 4F - 확장형 원룸

SPACE STORY : 일반 원룸과 구별을 위해서 복층으로 구성하였다.

아래 층에는 홈 오피스를, 복층에는 침실로 구성하여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구분하였다.  
층고가 높아서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실링팬을 달아주었다.





## INTERIOR VIEW

### 5F - PENTHOUSE

SPACE STORY : DINING ROOM과 거실과의 구분을 위해서 천장에 우물청장을 해주었다.

심신을 안정 시키는 효과가 있는 난로를 TV밑에 설치하였다.

테라스쪽 창문은 폴딩도어로 하여 모두 열었을 때 개방감이 있어보이게 하였다.

KEY PLAN





## EPILOGUE

코로나19와 바쁜 현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볍게 쉼을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절된 소통을 조금이나마 열릴 수 있길 바란다.

